

환절기를 대비하자



윤 덕 영
(덕영종돈장 대표)

농촌에서 가장 풍요롭고 일손이 바쁜 계절이 가을이다.

옛 성현들은 황금색으로 도색된 농촌 풍경만 바라보아도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된듯하다고 말했지만, 오늘날의 농촌은 어떠한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금년에는 유난히 긴 장마때문에 농작물의 생산은 떨어지리라고 예상되지만 돼지를 사육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선선한 날씨 덕분에 모돈이나 웅돈들의 더위에 의한 번식장애 등의 피해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적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으로 자돈의 설사로 고생들은 했겠지만……

매년 농장에서 맞이하는 가을과 봄의 환절기는 양돈업을 천직으로 알고 생활하는 우리들에

게는 가장 대처하기 어렵고 분주한 계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환절기 — 과연 손쉽고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보내고 맞이하는 방법은 없을까?

앞으로 닥칠 혹한기와 혹서기를 대비 없이 보낼 마땅한 방법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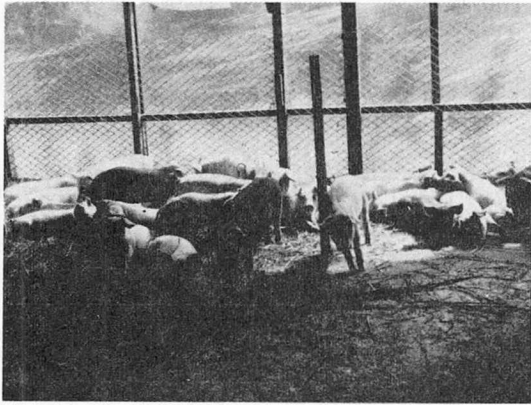
조상들이 말하길 살기좋은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축산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외국과 비교해서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가장 어렵고 악조건속에서 생활하는, 한국의 축산인이야말로 세계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입지전적인 인물들이다. 환절기를 손쉽고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들을 차례대로 열거해 본다.

무더운 더위에 의한 식욕부진과 활동의 기피로 대부분의 돼지들이 허약한 상태로 일교차(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저항성 약화로 인한 호흡기 질병과 설사등 제반질병의 수반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각 돼지군(群)별로 사양을 달리하여 피해를 막도록 해야겠다.

(가) 웅돈(雄豚)

일반적으로 매년 여름을 보내고 나면 우수한 웅돈을 사용치 못하고 도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혹서기에 너무 무리하게 종부를 시켰다든가 휴식을 충분하게 해준다고 한달정도를 종부 없이 쉬게 한 경우인데, 승가육을 상실하여 종돈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여 도태하는 우를 범하는 예가 왕왕 있는데 이는 환절기에 잘 사양하여 정력을 회복시켜 우수한 유전형질을 오래도록 이용해야겠다.

정력회복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약해진 체력을 보강시키기 위해 영양제주사와 비타민, 무기물질을 첨가해주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 충분한 운동을 시켜주며 종부장면을 많이 접해주고 환절기에 약해진 체력으로 외부 세균이



나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이나 폐염 등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기 위해 항생제의 첨가를 약 1~2주간 시행해 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 증빈돈(種牝豚)

앞에서 열거한 웅돈과 마찬가지로 이유한 모돈(휴양돈)이나 포유모돈, 임신돈 모두가 약한 상태이고 특히 갓 이유한 휴양돈은 특히 체력소모가 많아 발정재귀일이 늦어 공사료를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열량 사료와 각종 복합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첨가를 잊지 말아야겠다.

특히 방목장에서 사육치 않고 돈사 내부에서만 사육한 임신돈은 충분한 환기와 더위로 인해 사료급식량이 적어 내부적으로 허약하여 충실한 자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만한 자돈이 건강하게 육성되질 못하는 예를 많이 보아왔기에 영양이 충분한 사료로 10여일 정도 사양해주는 것이 좋은 자돈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포유모돈일 경우엔 임신돈과 마찬가지로 이지만 분사보다는 연사로 많은 양의 사료를 섭취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이유시기에 가까와 오면 종합비타민제 등의 영양제 공급으로 급격한 체력소모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로 일관해야겠다.

(다) 자돈과 육성돈

포유자돈이나 이유자돈은 모돈의 충실치 못한 체력에 의해 풍부한 양의 모유를 먹지 못하고 공복감을 메꾸기 위해 불결한 물을 먹어 설사로 인한 약한 자돈인 상태로 포유, 이유되는 까닭에 환절기에 의한 자체방어 능력이 저하되어 호흡기 질병에 의해 폐사되는 일이 많아 12월에 출하가 적어 돈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처음 먹이와 이유사료에는 2주정도 종합항생제와 소화제, 영양제 등을 충분히 첨가해주고 깔짚을 많이 넣어 주며 야간 보온에 신경을 써서 냉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야 함과 동시에 보온장치도 서서히 하여 10월 하순경에는 밤과 낮의 기온차를 최대한 줄이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라) 비육돈

비육돈(체중40kg이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갑작스런 야간의 기온 저하로 돼지들이 한군데로 몰려 호흡불량으로 약돈 발생이 많이 오고 후구마비와 함께 탈항이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므로 너무 밀사되지 않게 돈군(豚群)을 분류하고 환기가 잘되게 신경을 쓰고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항생제를 1주정도 첨가해 주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문제들은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이나 실제로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다. 앞으로 닥칠 겨울을 대비해 충분한 방한준비와 충분한 깔짚 등은 미리 미리 준비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양돈장이 되길 바란다.

